

결혼이주여성의 임신·출산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

배지현, 박정숙*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The trend of domestic research on the pregnancy and childbirth of married immigrant women

Ji-Hyun Bae, Jung-Suk Park*
College of Nursing, Kosi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2007년부터 10년 동안 발표된 국내 학위논문과 학회지 논문 중 학술정보서비스(<http://www.riss.kr>)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임신·출산에 관련된 연구(74편)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동향 분석은 학문분야, 연구설계, 주요 주제 및 중재 연구에 사용된 결과 변수에 의해 분석되었다. 74편의 논문 중 학위논문은 28편(38.6%), 학회지는 46편(61.4%)으로 조사 되었으며, 이중 37편(50.0%)은 간호학에서 수행되었다. 양적 연구의 경우 45편(60.8%), 질적 연구가 29편(39.2%)으로 질적 연구가 상대적으로 더 적은 편이었고, 양적 연구 중 가장 많이 사용된 연구 설계는 서술적 연구가 22편(29.9%)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주요 개념은 간호의 패러다임인 간호, 환경, 건강, 인간 영역으로 분류하였고, 네 가지에 속하지 않은 것은 기타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대부분의 연구 주제는 건강 영역인 사회·심리 측면이었으며, 다음은 인간 영역 순이었다. 8편의 중재 연구 분석에서 7편은 산육기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고, 나머지 1편은 산육기 결혼이주여성과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가장 빈번하게 측정된 결과 변수는 적응에 대한 중재에서 양육과 관련된 모성역할 수행자신감, 지지, 지식에 대한 내용이었다. 연구 유형별 연구 설계에서는 양적 연구가 질적 연구 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양적 연구에서도 실험연구 보다는 서술적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실험연구의 경우에서도 연구의 대상자가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결혼이주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 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을 포함한 새로운 간호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Abstract This investigation reviewed 74 studies related to pregnancy and childbirth of married immigrant women that were selected from national dissertations and others in journals released in the past 10 years from 2007 that were identified using <http://www.riss.kr>. Analysis on the trend of research was done through result variances used in academic fields, planning researches, main themes and mediative studies. Of the 74 studies, 28 were national dissertations (38.6%) and 46 were articles in academic journals (61.4%), 37 of which were performed by nursing departments (50.0%). Additionally, 45 were quantitative (60.8%) and 29 were qualitative (39.2%) and descriptive research, and 22 in total(29.9%) took the most of the part of quantitative research. Key concepts were categorized into nursing, environment, health, and humans, which are the paradigms of nursing, while papers in all other categories were categorized as etc. Most themes of research were based on social psychological aspects of the health domain and the human domain. Among the eight mediative research studies, seven focused on postnatal married immigrant women and the remaining one focused on postnatal married immigrant women and infants. In the categorized research planning quantitative research took larger part than qualitative research and in quantitative research descriptive study took larger part than experimental research. In the case of experimental research, studies usually focused on married immigrant women who had experienced pregnancy and childbirth. Overall, the results indicated that development and provision of new nursing mediation programs are needed, not only for married immigrant women, but also for their families.

Keywords : Childbirth, Married immigrant women, Pregnancy, Research, Trend

*Corresponding Author : Jung-suk Park(Kosin Univ.)

Tel: +82-51-990-6451 email: cooler1978@kosin.ac.kr

Received December 20, 2017

Revised (1st February 7, 2018, 2nd February 13, 2018)

Accepted March 9, 2018

Published March 31, 2018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국제적 지위 향상과 세계화로 인한 물질·인적 교류의 확산, 혼인수급의 불균형 및 결혼관의 변화 등의 다양한 이유로 인구의 세계적 이동의 증가와 국제적 결혼이 확산되고 있다[1]. 최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7년 누적된 여성 결혼 이민자의 수는 97,236명에서 2016년 128,518명으로 10년 사이에 1.3배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2], 이들 결혼이주여성의 상당수는 20-30대 가임기 여성들로 이주 후 평균 6.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첫 임신을 경험하고 출산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임신과 출산, 양육에 대한 정보와 경제적, 신체·정신적 지원 등을 요구하게 되고 이와 더불어 이들의 수적 증가는 많은 잠재적 문제점을 가지게 된다[3,4].

임신과 출산이라는 경험은 여성에게 신체적, 정신·사회적 측면에서 많은 변화와 관심이 필요한 대상이며[5], 이시기의 여성 건강은 자신 뿐 아니라 출생아의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6]. 이처럼 여성에게 있어 임신과 출산, 양육은 생애의 중요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이주여성의 상당수가 평균 30대 이후에 출산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나라 여성에 비해 30대 이전이라는 비교적 어린나이에 출산이 이루어지게 되면서[7], 결혼생활 및 문화와 언어에 대한 충분한 적응 없이 어머니가 되어감에 따라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문화 간 충돌, 자녀양육 어려움, 가정폭력 및 정신적·신체적 피해, 빈곤, 지역 사회 및 한국 사회로의 통합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여성에 비해 스트레스 정도가 더 가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8,9]. 또한 결혼이주여성은 대부분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취약계층에 속하며 비용에 대한 부담감, 의료기관의 접근성장애, 의사소통 어려움, 의료급여 문제, 정보부족, 가족의 무관심 등으로 기본적인 보건의료서비스조차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게 되면서 고위험 임신과 그에 따른 저체중아 출산, 조산율과 사산율 증가와 같은 출산결과의 악화를 초래하게 된다[10,11]. 이처럼 결혼이주여성의 임신기 건강과 출산 수준은 단순히 출생 시 건강뿐만 아니라 성장 후 성인기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이는 향후 우리나라 인구 자질 향상뿐만 아니라 건강한 인구 확보를 위해 인구보건 정책과제의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7,12].

이로 인해 최근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 행정부처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임신과 출산, 양육에 관련된 다양한 생애주기별 가족 지원 사업을 확대시키고 있으나 현행법상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인 남성과 혼인신고가 이루어져야만 결혼이주 비자를 받아 의료보험을 적용받게 되어 실제적으로 남편이 피부양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의료보험에서 제외되어 임신과 출산으로 생식건강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결혼이주여성만이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는다고 보고되고 있다[10,13]. 이처럼 노동이 아닌 결혼을 통한 한국사회 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결혼이주여성의 수적 증가는 이들이 우리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써 건강한 결혼생활을 영위하고, 향후 우리나라 전체 출산력은 물론 모자건강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집단이라는 면에서 결혼이주여성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임신과 출산 관련 요구를 사정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이러한 다문화가정의 증가에 따라 결혼이주여성과 그들의 가족에 관한 연구가 비교적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나 그동안 국내 연구는 사회복지와 문화 적응, 자녀교육 문제등과 같은 사회문화적 지표에 초점을 둔 연구가 주로 수행되고 있었으며[7], 결혼이주 여성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임신·출산에 관련되어 수행된 연구흐름을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이들을 위한 중재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결혼이주여성의 임신·출산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들에 대하여 학문분야, 연구설계, 주요 주제 및 개념, 간호중재와 관련변수를 포괄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향후 간호학 분야의 결혼이주여성의 임신·출산에 관한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 효율적 중재방안 모색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1.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대상 논문을 검색하기 위해 학술정보서비스(<http://www.riss.kr>)를 이용하여 검색 하였으므로 종설

과 인터넷으로 원문수집이 불가능한 논문들에 대해서는 접근에 제한점이 있어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국내 결혼이주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관한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연구(descriptive study)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연구 분석 대상 논문은 교육정보화를 위해 과학기술부 산하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학술정보서비스(<http://www.riss.kr>)를 이용하여 결혼이주, 임신, 분만의 주요어를 조합하여 문헌을 검색하였다. 2007년부터 10년 동안 발표된 국내 학위논문과 주요 관련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과 대한간호학회지 및 주요 관련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과 한국간호과학회 산하의 8개 분과 학회지 중 결혼이주여성의 임신·출산에 관련된 연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문헌을 선정하기 위해 논문의 제목과 초록을 단계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기준을 적용하였고, 초록으로 문헌 선택이 어려운 경우 전문을 찾아 확인하였으며, 이런 과정을 거쳐 검색어를 통해 일차적으로 검색된 문헌은 총 110편이었으며, 검색된 문헌의 제목을 검토하여 83편의 논문이 선택되었고 초록을 검토한 결과 76편의 논문이 선택되었으며, 문헌의 전문을 검토한 결과 최종 74편의 논문이 선정되었다. 74편의 논문은 학위논문 28편과 학회지 논문 46편의 논문으로 분류되었으며, 이중 학위논문과 학술지에 이중으로 게재된 논문은 학위논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3 연구도구 및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의 도구는 간호학 분야에서 논문 분석을 위해 사용되었던 선행연구에서의 분석 틀을 고찰하여 본 연구자들이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으며[14,15,16,17,18], 표본 추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협력 연구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자료를 선택하도록 하였고 3년 단위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1) 학문분야 분석: 학위논문과 학회지 논문으로 분류

하고, 학회지 논문의 경우 학술지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 2) 연구설계 분석: 양적연구와 질적 연구로 세분화하였다.
- 3) 연구 주요개념 분석: 연구 주제어 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 4) 실험연구 분석: 중재 연구에 사용된 관련 변수와 대상자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학문분야 분석

학문 분야별 결혼이주여성의 임신·출산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을 분석해보면 Table 1과 같다. 2007~2009년 6편(8.1%)이던 연구가 2010~2013년 37편(50.0%)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검색된 74편의 논문 중 학위논문은 28편(38.6%), 학회지는 46편(61.4%)으로 조사되었으며, 학위논문의 경우 2007년 이후 석·박사 학위논문이 증가하였고, 2014년 이후 총 28편 중 절반 정도인 13편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학술지의 경우 여성건강간호학회지가 7편(9.5%), 모자보건학회지가 5편(7.0%), 대한간호학회지 4편(5.4%), 아동간호학회지가 4편(5.4%) 순으로 간호학 관련 분야가 월등히 많았고, 의학 관련 학회지인 주산의학회지에는 2013년 1편의 연구만이 수행되었다. 전반적인 연구 수행 현황을 살펴보면 간호학이 37편(50.0%)로 가장 많았고, 그 밖에 사회학 19편(25.7%), 교육 7편(9.5%), 심리학 6편(8.1%) 순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이전에는 주로 간호학, 공중보건, 교육 분야에서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2010년 이후부터는 의학 및 심리학 분야에서도 소수이지만 연구가 수행되기 시작하였다.

3.2 연구설계 분석

결혼이주여성의 임신·출산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을 분석 연구 설계별로 분석해보면 Table 2와 같다. [19]의 간호·의료연구와 통계분석방법을 참고하여 해당 논문의 대상자 선정,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을 비롯해 연구 방법과 연구 결과를 숙독한 후에 연구설계 유형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기준으로 구분한 총 74편의 분석대상논문 중 양적 연구가 45편(60.8%), 질적 연구가 29편(39.2%) 질적 연구가 상대적으로 더 적은편 이었고, 양적 연구의 경

Table 1. Field of Study Analysis (N=74)

Origin/Year	07-09	10-13	14-17	Total(%)
Thesis				
Doctoral thesis	1	3	3	7(9.5)
Master's thesis	2	9	10	21(29.1)
Sub total	3(4.1)	12(16.4)	13(18.1)	28(38.6)
Journal				
Korean Nurses Academic Society			4	4(5.4)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1		1(1.3)
Korean Society of Adult Nursing		1		1(1.3)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	4	2	7(9.5)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3	2	5(7.0)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3	1	4(5.4)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		1(1.3)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1	1(1.3)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1	1(1.3)
Journal of Qualitative Research		1	1	2(2.9)
Korean Journal of Perinatology		1		1(1.3)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1		1(1.3)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1			1(1.3)
Korean Society for Agricultural Medicine and Community Health	1			1(1.3)
Korean Association of Family Relations		1		1(1.3)
Korea Association of Bibliotherapy		1		1(1.3)
The Korean Society of Stress Medicine			1	1(1.3)
Korean Parent-Child Health Journal			1	1(1.3)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1		1(1.3)
The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Teacher Education			1	1(1.3)
Family and culture			1	1(1.3)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1		1(1.3)
Journal of Multi-Cultural Contents Studies		1		1(1.3)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1		1(1.3)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		1(1.3)
The Korea Association Social Innovation		1		1(1.3)
Journal of DIASPORA Studies			1	1(1.3)
The Institute for Koran Culture		1		1(1.3)
Hanyang University, Comparative Studies of Japanese Studies			1	1(1.3)
Sub total	3(4.1)	25(33.0)	18(24.3)	46(61.4)
Study				
Nursing	2	16	19	37(50)
Medicine		1		1(1.3)
Public health	2	2		4(5.4)
Psychology		3	3	6(8.1)
Education	2	2	3	7(9.5)
Sociology		13	6	19(25.7)
Total	6(8.1)	37(50.0)	31(41.9)	74(100)

Table 2. Research Design Analysis

(N=74)

Design/Year		07-09	10-13	14-17	Total(%)
Quantitative study	Descriptive research	5	9	8	22(29.9)
	Experimental research		2	6	8(10.8)
	Correlational research	1	5	5	11(14.8)
	Methodological research		2		2(2.7)
	Mixed research methods		1		1(1.3)
	Time-dimensional research		1		1(1.3)
	Sub total		6(8.1)	20(27.0)	19(25.7)
Qualitative study	Ethnography		1		1(1.3)
	Content analysis		1		1(1.3)
	Narrative research			3	3(4.1)
	Grounded theory research		2	1	3(4.1)
	Phenomenological research		12	7	19(25.7)
	Focus group research		1	1	2(2.7)
	Sub total		0	17(23.0)	12(16.2)
Total		6(8.1)	37(50)	31(41.9)	74(100)

우에는 2010년 이전은 6편(8.1%)에 불과하던 것이 2010년 이후에는 19편(25.7%)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양적 연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술적 연구가 22편, 상관성 연구가 11편, 실험연구가 8편으로 서술적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실험연구는 2010~2013년 2편, 2014~2017년 6편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3.3 연구 주요개념 분석

연구 주요개념별 결혼이주여성의 임신·출산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을 분석 해보면 Table 3과 같다. 주요개념 영역은 간호 학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메타 패러다임인 간호, 건강, 환경,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분류하였으며, 이 네 가지에 속하지 않는 것은 기타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이중 간호영역은 사정, 계획, 중재, 평가로 하위영역을 세분화 하였으며, 건강영역은 신체, 사회·심리적, 영적 측면으로 세분화 하였다. 또 환경영역은 사회적, 연구학적 측면으로 분류하였고, 그 외 인간영역과 기타로 분류하였다. 연구 주제는 연구 대상을 결혼이주여성으로 하여 임신·출산 관련 연구를 중심으로 논문의 주요개념을 분류하였고, 연구 주요개념이 다수인 경우 종속변수를 중심으로 세분화 하였다. 2007년부터 10년 동안 수행된 연구 주요개념을 확인한 결과 74개의 주제가 도출되었으며, 주제별로 구체적으로 구분하면 건강영역에서 44개, 간호영역 16개, 환경영역 2개, 인간과 기타 영역에서 각 1개의 주요개념이 도출되었다. 가장 많이 다룬 주제인 건강영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심리적 측면

이 27편, 다음으로 영적 측면이 14편, 신체적인 측면이 3편으로 나타났다. 간호영역에서는 중재가 11편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획에서 10편, 사정에서 5편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가 부분에서는 연구 주제가 확인되지 않았다. 환경영역에서는 사회적 측면에서 2편이, 연구적 측면에서는 연구 주제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인간영역과 기타로 분류된 영역에서는 각 1편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주요개념이 다루어진 건강영역에서의 연구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24편으로 활발하게 수행되었고, 그중 사회·심리적 측면에서는 양육이 3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모성, 출산 의지, 갈등, 삶의 질, 문화적응, 사회적지지, 가족지지 등이 각 1편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영적 측면에서는 경험(임신·출산, 모성, 다문화 경험), 삶의 전환, 양육경험이 2편순으로 나타났으며, 신체적 측면에서는 출산에 대한 연구 개념의 논문이 1편으로 나타났다.

또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건강영역 연구 18편 중 사회·심리적 측면에서는 어머니 역할수행이 2편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갈등, 스트레스, 산전우울, 가족건강성, 양육지원, 출산의지 등이 각 1편으로 나타났다.

간호영역을 주제로 한 연구 또한 2009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중 중재와 관련된 연구의 경우 2007년~2013년까지는 교육과 관련된 중재개발 연구가 주로 수행 되었으나 2014년부터는 교육뿐만 아니라 간호중재프로토콜 개발과 같은 연구가 시작되었다. 계획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2010년 이전에는 건강관리와 모자보건을 주제로 한 2편의 연구만이 수행되었으

Table 3. Research Theme Analysis

(N=74)

Theme \ Year		Key Concept(Subject)		
		07~09	10~13	14~17
Nursing	Assessment (5)(3 [*])		Needs Assessment (1) Maternal and Perinatal Factors (1)	Health Problems (1)(2 [*]) Obstetric Outcomes (1)(1 [*]) Demand (1)
	Plan (10)(2 [*])	Maternal health (1) Health Management(1)(1 [*])	Childbirth Service (1) Welfare (1) Support Program (1) Infection Control (1)(1 [*])	Maternal Role Attainment(1) Health Management (2) Birth Control (1)
	Intervention (11)(8 [*])	Children's Education (1)	Development of Mobile Application (1)(2 [*]) Education (1)(1 [*]) Bibliotherapy (1) Parental Education (1)(1 [*])	Korean textbook (1)(1 [*]) Education (1)(1 [*]) Parenting Program (1)(1 [*]) Postpartum Nursing Inter-vention Program (1)(1 [*]) Individual Breast-Feeding Promotion Program (1) Tailored Maternal Health Management Program (1)
Sub total	(26)(13[*])	(3)(1[*])	(10)(5[*])	(13)(7[*])
Health	Physical (3)	Childbirth (1)	Childbirth (1)	Childbirth (1)
	Psycholog-ical (27)(14 [*])	Parenting Stress (1)(1 [*])	Childbirth Intention (1) Mothering (1)(1 [*]) Conflict (1) Cultural Integration (1)(1 [*]) Influencing Quality (1)(2 [*]) Family Support (1)(1 [*]) Motherhood (1) Social Support (1) Life Change Events (1)(1 [*]) Parenting (3)(2 [*]) Child rearing (1)(1 [*]) Multi-cultural Perspective (1)(2)	Childbirth Intention (1)(1 [*]) Mothering (2) Conflict (1) Stress Coping Styles (1) Stress (1) Multiculturalism (1) Family Strength (1) Parenting Support (1)(1 [*]) Antenatal Depression (1)

(Continued to the next page)

Table 3. Research Theme Analysis

(N=74)

Theme	Year	Key Concept(Subject)			
		07-09	10-13	14-17	
Health	Spiritual (14)(7 [*])	Experience of transition (1)(1 [*])	Empowerment (1)	Childbirth Intention (1)	
			Family Relationship (1)		
			Experience of transition (2)(1 [*])		Experience (2)(2 [*])
			Experience (2)(2 [*])		Caring Experience (1)
			Caring Experience (2)		Postpartum Experiences (1)
Sub total	(44)(21 [*])	(3)(2 [*])	(24)(15 [*])	(17)(4 [*])	
Environment	Social (2)(1 [*])		Laws and Policies of Multi-cultural Family (1)(1 [*])	Childbirth Environment (1)	
			Sub total	(2)(1 [*])	(1)(1 [*])
Human			Children with Disabilities (1)(1 [*])		
Sub total	(1)(1 [*])		(1)(1 [*])		
Ect.			Children ever-born (1)		
Sub total	(1)		(1)		
Total	74(36[*])	(6)(3[*])	(37)(22[*])	(31)(11[*])	

^{*}Duplication

나 2010년 이후부터는 결혼이주여성의 임신·출산과 관련된 건강관리, 출산서비스나 복지, 지원프로그램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더불어 간호 사정에 대한 연구는 건강문제나 산과적결과, 예후인자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3.4 실험연구 분석

결혼이주여성의 임신·출산에 관한 국내 실험연구 동향을 분석해보면 Table 4와 같다. 실험연구 8편 중 7편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1편 [20]은 분만 한지 3일 이내인 결혼이주여성과 재태연령이 37주 이상인 생후 3일 이내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또 실험연구 8편 모두 대조군을 두고 있었으며, 이중 4편은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NCGPP)에 해당하였고 나머지 4편은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시차설계(NCGNS)로 연구되었다. 중재를 적용한 총 8편의 실험연구를 주제별로 분류한 결과 간호영역 중 중재에 대한 연구가 5편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계획에 대한 연

구로 3편이 연구되었다.

중재결과 임신·분만 관리프로그램이 임신관련 지식, 신생아 양육지식, 산후관리 자기효능감을 증가시켰고 [21], 산후 간호중재 프로그램이 영아돌보기 자신감의 시간에 따른 변화와 그룹과 시간의 상호 작용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모성우울은 시간에 따른 변화는 유의하였으나 그룹 간 비교와 시간의 상호 작용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영아기질과 남편지지는 사정이 어려운 산후 6주와 3개월 두 차례 사후조사만 실시하였는데 기질은 그룹 간 차이만, 남편의 지지는 시간에 따른 변화만 유의하였으며, 양육환경 비교에서는 산후 3개월 양육환경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22]. 모성적응 위한 맞춤형 모성건강관리 프로그램에서는 출산·임신수용, 모성역할 수행자신감, 가족지지에서[11] 산후 맞춤형 출산 조절 프로그램은 피임에 대한 태도 및 주관적 규범, 피임에 대한 지각된 행위 통제, 피임 의도, 피임 행위에 효과적이었고[23], 감염예방교육 프로그램에서는 감염예방과 관련된 지식과 실천에서 효과가 있었으며[24], 결혼

이주 초산모를 위한 신생아양육 프로그램에서는 양육스트레스와 어머니역할 자신감에 효과적이었으며[25],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개별적 모유수유증진 프로그램은 모

유수유 태도와 방법, 실천율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20].

Table 4. Interventions and Outcome Variables of Experimental Studies (N=8)

Theme	Year	Method	Intervention	Outcome (dependent variable)	Subject
Nursing (Plan)	2013	NCGNS	Infection Prevention Education Program	Knowledge of infection Prevention	Infant and Child for Married Immigrant Vietnamese Women
	2014	NCGNS	Maternal Role Attainment Program	Practice of infection Prevention	Mothers in Multi-cultural Families
				Postpartum Self-Care Knowledge	
2016	NCGPP	Customized Birth Control Program	Postpartum Self-Care Confidence	Newborn Care Knowledge	Married Immigrant Postpartum Mothers
				Maternal identity	
2016	NCGPP	Customized Birth Control Program	Subjective norms of Contraception	Perceived control over Contraception	Married Immigrant Postpartum Mothers
				Attitudes to Contraception	
2016	NCGPP	Customized Birth Control Program	Contraceptive intent	Contraception	Married Immigrant Postpartum Mothers
				Contraception	
Nursing (Intervention)	2010	NCGNS	Educational Program of Pregnancy and Delivery	Pregnancy related Knowledge	Marriage migrant women
	2014	NCGPP	Postpartum Nursing Intervention Program	Newborn Care Knowledge	Immigrant Mothers
Postpartum Care Self-efficacy					
2015	NCGPP	Tailored Maternal Health Management Program	Marital Satisfaction	Postpartum Depression	Marriage migrant women
				Parenting Environment	
2016	NCGNS	Newborn Parenting Program	Maternal Adaptation	- Acceptance of pregnancy	Marriage Immigrant Primipara
				- Maternal identity	
2016	NCGPP	Individual Breast-Feeding Promotion Program	Parenting Stress	- Maternal Health	Marriage migrant women
				- Maternity Role Confidence	
2016	NCGPP	Individual Breast-Feeding Promotion Program	Breast-feeding Knowledge	Mothers' Role Confidence	Marriage migrant women
				Breast-feeding Knowledge	
2016	NCGPP	Individual Breast-Feeding Promotion Program	Breast-feeding Attitude	Breast-feeding Method	Marriage migrant women
				Breast-feeding Practice	

NCGPP: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NCGNS: nonequivalent control group non-synchronized design

4. 논의

본 연구는 2007년부터 10년간 수행된 국내 결혼이주 여성의 임신·출산에 관한 연구 동향을 파악하여 향후 국내 간호학 분야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연구 방향 및 실질적 중재방안 모색에 필요한 기초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학문 분야별 연구를 살펴보면 2007~2009년 6편이던 연구가 2010~2013년 37편으로 약 4배가량 증가되는 것을 통해 국제결혼을 통해 점차 늘어가는 결혼이주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관심과 함께 그에 따른 연구가 점차 증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총 74편의 논문 중 절반 이상인 50.0%가 간호학 관련 분야에서 연구가 수행되었고, 다음으로 사회학 분야에서 25.7% 연구가, 의학 관련 분야에서는 1편의 연구만이 수행되었다. 또 분야별 특징을 살펴보면 간호학 분야에서는 2010년 이전에는 결혼이주여성의 임신·출산에 대한 경험과 건강관리 실태에 초점을 둔 두 편의 연구만이 수행된 반면, 2010년 이후 연구가 점차 진행되면서 이들의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연구 뿐 아니라 모성경험, 삶의 전환, 건강문제, 산전우울, 갈등 및 스트레스, 가족 건강성, 출산의지 등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 수행이 이루어졌으나 이는 [26]의 연구 결과와도 마찬가지로 결혼이주여성의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겪게 되는 질병의 원인 및 진단, 치료와 예후, 신체·정신적 건강상태 등의 연구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우리나라의 인구 자질 향상 뿐 아니라 출산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집단인 결혼이주여성의 생식건강에 대한 연구가 추가로 진행되어야 하겠다.

이와 더불어 2014년 이후 결혼이주여성의 임신과 출산, 양육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모성역할 획득 및 산후간호중재, 건강 관리프로그램 등과 같은 연구가 증가하게 된 것은 결혼이주여성의 대부분이 가임기 여성이라는 점에서 임신·분만 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통해 모성건강 뿐 아니라 한국사회 전체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수적인 과제라는 [27]의 연구 결과도 이와 유사하다. 또 사회학 분야에서는 국제결혼과 임신·출산을 통해 그들이 겪게 되는 어머니 되기, 양육, 가족관계, 양육스트레스, 삶의 질과 관련된 연구의 수행이 이루어지는 한편,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출산서비스, 가족 및 사회적지지, 지원프로그램 등과 같은 지지체계 구축

과 자원 및 전략 개발과 관련된 연구가 점차적으로 증가된 것 또한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이들의 사회·문화적 적응과 더불어 모자보건에 긍정적 효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28]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살펴볼 때, 향후 국내 출산율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할 결혼이주여성과 가족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학제간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 하겠다.

연구설계별 유형을 분석하면 절반 이상인 60.8%가 양적 연구였으며, 2010년 이전에는 6편에 불과하던 연구가 2010년 이후에는 20편으로 3배 이상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양적 연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술적 연구가 22편, 상관성 연구가 11편, 실험연구가 8편이었고, 이들 서술적 연구의 대부분이 결혼이주 여성의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정책, 건강관리 실태만을 조사한 연구였다는 결과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건강관련 중재 연구 동향을 분석한 [28]의 연구 결과에서처럼 양적 연구 중 조사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재연구가 부족하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즉 앞으로 연구는 모성건강 관련 인식 및 실태만을 파악하는 데 그치지 보다 결혼이주여성과 가족의 건강관련 문제와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 중재적 접근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질적 연구의 경우 29편의 연구 중 절반 이상인 19편의 연구가 결혼이주여성이 임신과 출산, 육아의 과정을 거치면서 경험하게 되는 현상에 초점을 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가족에 대한 질적 연구의 수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혼에 의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신과 출산, 양육으로 발생하는 일련의 갈등 상황들로 인해 결혼이주여성은 심각한 스트레스와 우울과 같은 정서장애를 경험하게 되고[29], 이러한 적응유연성의 저하는 다문화 가정의 가족건강성 역시 위협을 받게 된다[30]. 이 같은 결과는 결혼이주여성이 출산을 통해 육아를 담당하는 어머니로서의 실제적인 요구와 어려움을 확인하고 이를 중재하는 것이 의의가 있다고 하겠으나 이는 가족에 대한 어려움과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31]의 연구에서 남편의 지지에 대한 만족도와 결혼 만족도가 높을수록 산욕기 결혼이주여성의 가족건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2]의 연구에서는 가족지지 특히 배우자 지지가 자아존중감 향상과 양육스트레스의 감소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확

인되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이 겪게 되는 어려움을 이주여성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가족이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연구의 대상을 가족으로 확대하여 다각도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연구 주요개념을 살펴보면 74개의 주제어 중 건강영역에서 44개, 간호영역 26개, 환경영역 2개, 인간과 기타 영역에서 각 1개의 주요개념이 도출되었다. 가장 많이 다룬 주제인 건강영역에서는 사회·심리적 측면이 27개, 다음으로 영적 측면이 14개, 신체적인 측면이 3개로 나타나 신체적 측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시아계 결혼이주 산모의 출산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다문화 가정의 출산과 신생아 관리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신생아와 결혼이주여성의 주산기 예측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가 부족한 상태라 분석한 [27]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였다. 2010년 이후로 건강영역 중 사회·심리적 측면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연구주제의 대부분은 국제결혼과 임신·출산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이 겪게 되는 모성과 갈등, 산전우울, 스트레스, 어머니 역할수행, 문화적응 등과 관련된 개념의 연구 수행이 이루어지는 한편,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양육 지원, 가족 및 사회적 지지, 역량강화 등과 같은 지지체계 구축과 자원 및 전략 개발과 관련된 연구가 수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결혼이주여성들의 현 상황에 대한 서술과 적응에 대한 부정적 측면만을 강조하던 과거의 연구와는 달리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사회 적응과 자원, 지지체계 구축에 대한 주제의 연구가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임신·출산 및 육아에 대한 관심과 실제적인 관리방안 적용을 통해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또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생활스트레스가 감소하고, 결혼만족도와 정서적 지지가 높을수록 산전우울이 낮아진다는 [30]의 연구와,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양육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건강문제가 많고,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건강문제가 적다는 [32]의 연구와도 비슷한 결과라 하겠다. 이러한 연구 변화의 반영은 간호영역 중 계획과 중재적 측면에서도 2010년 이후 결혼이주여성의 어머니로서 자녀를 돌보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교육과 양육 및 지원, 모성역할획득, 맞춤형 모성건강관리 프로그램 등과 산후관련 간호중재가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신생아양육 프로그램

이 결혼이주여성이 어머니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신감과 양육스트레스의 감소에 영향을 주었다는 [24]의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환경영역 중 사회적 측면의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관련 법·정책에 대한 영역과 출산환경과 관련된 주제의 연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다문화가정의 증가와 함께 발생하게 되는 실태와 인권 및 복지 차원에서의 문제만을 다루던 기존의 미시적 시각을 벗어나, 결혼이주여성과 가족이 겪게 되는 갈등과 힘든 상황을 거시적 차원에서 우리사회 전반의 문제로 인식하여 국가적 입장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반영한 결과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실험 연구별 분석을 살펴보면, 45편의 양적 연구 중 실험연구가 8편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2010년 이전에는 결혼이주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2010~2013년 2편이던 연구가 2014~2017년에는 6편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실험연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임신/분만관리 교육[25] 및 부모역량강화[33], 산후간호중재[22], 모성역할 획득 교육프로그램 개발[34], 모성적응을 위한 맞춤형 모성건강관리 프로그램 [11], 개별적 모유수유증진 프로그램[20] 등과 같은 연구의 증가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의 증가는 86.3%의 결혼이주여성이 결혼 후 평균 1년 내에 임신을 경험하게 되면서[31] 국제결혼으로 인한 급작스러운 환경의 변화와 이로 인해 충분한 적응 없이 어머니가 되어감에 따라 그들 자신뿐 아니라 아기에게 미치는 건강상의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는 [7]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결혼을 통해 점차 늘어가는 결혼이주여성의 임신·출산에 대한 관심과 함께 그에 따른 중재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험연구를 주제별로 살펴보면 5편은 간호영역 중 중재에 해당하였고 다음이 계획에 대한 연구로 3편으로 국한되게 나타났으며, 이중 4편은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NCGPP)방법으로 나머지 4편은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시차설계(NCGNS)방법으로 연구되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신체적 건강관련 문제 중 이주 후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임신과 분만이라는 과정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결혼이주여성의 임신·분만 관리프로그램에 대한 효과를 비교한 연구에서는 임신관련 지식, 신생아 양육 지식, 산후관리 자기효능감을 증가 시켰으며[25], 결혼이주 초산모를 위한 신생아양육 프로그램에서는 양육스

트레스와 어머니역할 자신감에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나타냈다[24]. 또 모성적응을 위한 맞춤형 모성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결혼이주여성이 그렇지 않은 결혼이주여성보다 출산·임신수용, 모성역할수행자신감, 가족 지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1]. 그리고 산후 맞춤형 출산조절 프로그램은 피임에 대한 태도 및 주관적 규범, 피임에 대한 지각된 행위 통제, 피임 의도, 피임 행위에 영향을 주었으며[23],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개별적 모유수유증진 프로그램은 모유수유 태도와 방법, 실천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20]. 또한 산후 간호중재 프로그램이 영아돌보기 자신감, 모성우울, 영아기질과 남편의지지, 양육환경에 상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감염예방교육이 감염예방과 관련된 지식 및 실천에 영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23]. 이와 더불어 총 8편의 실험연구 중 1편만이 분만 한지 3일 이내인 결혼이주여성과 재태연령이 37주 이상인 생후 3일 이내의 신생아를 포함한 복수대상의 연구였으며, 나머지 7편은 결혼이주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여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에 대한 중재 연구가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양육에 대한 지식의 증가가 부모역할에 대한 의식 및 자신감 향상과 부모양육 태도 변화와 효능감에 긍정적 변화를 나타낸다는 [33]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자녀의 양육에 있어 돌봄의 주체에 어머니인 결혼이주여성뿐 아니라 아버지 또한 중요한 존재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즉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향후 결혼이주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관한 연구를 행함에 있어 결혼이주여성 뿐 아니라 그들 가족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중재 프로그램이 개발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07년부터 10년간 수행된 결혼이주여성의 임신·출산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 파악하여 향후 국내 간호학 분야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연구 방향 및 실질적 중재방안 모색에 필요한 기초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수행된 문헌분석 연구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임신·출산에 관한 연구는 2007~2009년 8.1%이던 연구가 2010~2013년 50.0%로

점차로 증가하고 있었으며, 학문분야는 간호학이 37편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하였고 사회학 19편, 교육학 7편, 심리학 6편, 의학 1편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구설계는 74편의 논문 중 양적 연구가 질적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양적연구 중 서술적 연구가 22편으로 가장 많았고, 실험연구는 8편으로 부족한 실정이었다.

셋째, 연구 주요개념은 양육, 모성, 출산의지, 갈등, 문화적응, 삶의 질 등 건강영역인 사회·심리적 측면과 관련된 개념이 대부분이었으며, 영적측면 14편, 간호영역에서 중재가 11편, 계획이 10편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실험연구는 총 8편의 실험 연구 중 7편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고, 나머지 1편만이 결혼이주여성과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였으며, 실험 연구를 주제별로 분류한 결과 간호영역 중 임신·분만관리 교육프로그램, 신생아양육 프로그램, 맞춤형 모성건강관리 프로그램 등과 같은 중재에 대한 연구가 5편으로 가장 많았고, 계획에 대한 연구는 3편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은 향후 우리나라 출산력 뿐 아니라 인구 자질 향상에 중요한 집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결혼이주여성의 임신·출산과 관련된 다학제간 협력연구를 해볼 것을 제언한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이 임신과 출산 육아라는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경험하게 되는 생생한 삶의 체험을 이해하기 위해 결혼이주여성뿐 아니라 가족 중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아버지에 대한 질적 연구를 수행해 볼 것을 제언한다.

셋째, 국제결혼과 낮은 임신·출산문화, 조력자의 부재 등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이 겪게 되는 사회·심리적 측면과 관련된 개념의 연구뿐 아니라 영적, 신체적, 중재 및 계획 등의 요구를 사정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다각적인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넷째, 결혼이주여성의 건강한 결혼생활 영위와 모성 건강 뿐 아니라 그들 가족의 신체적, 정신·사회적 측면에서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다양한 중재개발 연구가 수행 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from: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47&ccfNo=3&cciNo=1&cnpClsNo=4>
- [1] S. K. Kim,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Their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in a Policy Perspective",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vol. 165, pp. 5-18, 2010.
 - [2] Statistics Korea. A Portrait of the married couples through [Internet]. Daejeon: Statistics Korea, c2016 [cited 2017 July 26], Available from: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30
 - [3] S. H. Kim, "Pregnancy and Childbirth Experiences of Chinese Marriage Immigrant Women",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vol. 16, no. 2, pp. 170-185, 2013.
 - [4] C. S. Chung, "Pregnancy, Delivery and Cultural Integra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Graduate School Inje University, Busan, 2010.
 - [5] J. S. Jeong, "Pregnancy, Delivery and Cultural Integra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Graduate School of Soonchunhyang University, Chungnam, 2010.
 - [6] H. S. Lim, "The Experience of Health Care in Pregnancy and Childbirth among Married Immigrant Women in Korea", *Journal of Qualitative Research*, vol. 15, no. 2, pp. 117-129, 2014.
DOI: <https://doi.org/10.22284/qr.2014.15.2.117>
 - [7] H. R. Kim, J. Y. Yeo, J. J. Jung, S. H. Baek, "Health Status of Marriage Immigrant Women and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Health Policy Recommendation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2.
 - [8] T. I. Kim, Y. J. Kwon, M. J. Kim, "Phenomenological Study on Mothering Experiences of the Married Immigrant Women in Urban Area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vol. 18, no. 2, pp. 177-213, 2012.
DOI: <https://doi.org/10.4069/kjwhn.2012.18.2.85>
 - [9] E. J. Oh, J. S. Park, Y. K. Kim, H. S. Lee, "The Meaning of Pregnancy and Childbirth Experience of Women in Multi-cultural Family",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vol. 17, no. 2, pp. 256-269, 2013.
DOI: <https://doi.org/10.21896/jksmch.2013.17.2.256>
 - [10] W. S. Lee, "Development of Mobile Application on Pregnancy-Childbearing-Infant Care for Female Marriage Immigrants", Graduate school of Hanyang University, Seoul, 2013.
 - [11] K. S. Joo, "The Development and Effects of a Tailored Maternal Health Management Program for Maternal Adaptation of Immigrant Pregnant Women", The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Seoul, 2015.
 - [12] H. R. Kim, "Maternal Health and Nutritional Status of Marriage-Based Women Immigrants in Korea and Policy Directions",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pp. 50-64, 2009.
 - [13]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pplication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Internet]. Seoul: Ministry of Foreign, c2017 [cited 2017 December 15], Affairs. Available from: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47&ccfNo=3&cciNo=1&cnpClsNo=4>
 - [14] H. H. Cho, Y. M. Yoon, S. H. Moon, "Research Trends on Children with Precocious Puberty and Their Families in Korea",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vol. 18, no. 1, pp. 97-108, 2014.
DOI: <https://doi.org/10.21896/jksmch.2014.18.1.97>
 - [15] E. O. Lee., N. Y. Lim, H. A. Park, "Statistical analysis for nursing and medical research.(3rd ed.)", Soomunsa, 1998.
 - [16] J. S. Kim, J. Y. Lim, I. S. Kwon, T. I. Kim, H. R. Park, H. Y. Ahn, S. Y. Lee, H. M. Jung,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Paper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2005-2009)",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e*, vol. 17, no. 2, pp. 100-110, 2011.
DOI: <https://doi.org/10.4094/jkachn.2011.17.2.100>
 - [17] H. H. Cho, J. W. Yoon, "Trend in research on children with cancer and their families in Korea",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vol. 16, no. 1, pp. 73-83, 2010.
DOI: <https://doi.org/10.4094/jkachn.2010.16.1.73>
 - [18] H. S. Kim, J. Y. Ban, J. Y. Yoon, Y. H. Na, J. Y. Jeon, "Analysis of research on the nursing of hematology in Korea", *Asian Oncology Nursing*, vol. 10, no. 1, pp. 146-155, 2010.
DOI: <https://doi.org/10.5388/jkon.2010.10.2.146>
 - [19] H. Y. Lee, G. C. Park, M. K. Kim, O. K. Lee, "Factors Influencing on Perinatal Outcomes of Asian Marriage Immigrant Women : Ten-year Experience in a Single Center", vol. 24, no. 3, pp. 168-179, 2013.
 - [20] M. K. Park, S. H. Moon, "Effects of an Individual Breast-feeding Promotion Program for Married Immigrant Women", Korean Nurses Academic Society. vol. 46, no. 1, pp. 128-139, 2016.
DOI: <https://doi.org/10.4040/jkan.2016.46.1.128>
 - [21] E. H. Kim, E. J. Lee, M. J. Kim, D. Y. Park, S. H. Lee, "Effects of an Educational Program of Pregnancy and Delivery on Pregnancy related Knowledge, Newborn Care Knowledge, and Postpartum Care Self-efficacy of Marriage Immigrant Women", *Korean Nurses Academic Society*, vol. 40, no. 1, pp. 78-87, 2010.
DOI: <https://doi.org/10.4040/jkan.2010.40.1.78>
 - [22] K. S. Bang, B. Y. Huh, M. K. Kwon, "The Effect of a Postpartum Nursing Intervention Program for Immigrant Mothers",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vol. 20, no. 1, pp. 11-19, 2014.
DOI: <https://doi.org/10.4094/chnr.2014.20.1.11>
 - [23] S. Y. Kim, S. Y. Choi, "Effects of a Customized Birth Control Program for Married Immigrant Postpartum Mothers", *Korean Nurses Academic Society*, vol. 46, no. 6, pp. 780-792, 2016.
DOI: <https://doi.org/10.4040/jkan.2016.46.6.780>
 - [24] J. Y. Seo, E. Y. Kim, "Effects of an Infection Prevention Education Program in Infant and Child for Married Immigrant Vietnamese Women", *Korean Society of Adult Nursing*, vol. 25, no. 4, pp. 422-431, 2013.
DOI: <https://doi.org/10.7475/kjan.2013.25.4.422>

- [25] J. H. Lee, S. E. Oh, "Effects of the Newborn Parenting Program for Marriage Immigrant Primiparas on their Parenting Stress and Mothers' Role Confidence", *The Korean Society of Stress Medicine*, vol. 24, no. 3, pp. 220-230, 2016.
DOI: <https://doi.org/10.17547/kjsr.2016.24.3.220>
- [26] H. M. Ahn, M. O. Kim, "Analysis of Health Related Intervention Research for Married Immigrant Wome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12, pp. 245-256, 2016.
DOI: <http://dx.doi.org/10.14400/JDC.2016.14.12.245>
- [27] M. S. Jeon, K. J. Kang, S. H. Park, "A Study on Pregnancy, Delivery, and Infant Rearing Knowledge and Educational Need of Marriage Immigrant Women", *Korean Society for Agricultural Medicine and Community Health*, vol. 36, no. 3, pp. 179-190, 2011.
DOI: <https://doi.org/10.5393/JAMCH.2011.36.3.179>
- [28] H. H. Shin, Y. H. Shin, "Life Stress, Social Support, and Antepartum Depression among Married Immigrant Women from Southeast Asi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vol. 26, no. 2, pp. 108-118, 2015.
DOI: <https://doi.org/10.12799/jkachn.2015.26.2.108>
- [29] J. H. Lee, S. J. Jin, H. J. Ju, Y. S. Cho, "The Impact of Marriage Migrant Women's Korean Language Ability, Self-esteem, and Acculturative Stress on Their Family Health: Focused on Mediating Effects of Marital Adjustmen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vol. 24, no. 1, pp. 87-98, 2013.
DOI: <https://doi.org/10.12799/jkachn.2013.24.1.87>
- [30] Y. H. No, "The Study on the Self-Esteem, Family Support and Parenting Stress of Married Women Immigrated", Graduate School of Soonchunhyang University, Chungnam, 2011.
- [31] H. Y. Bae,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Family Strength of Puerperium Marriage Migrant Women", Graduate School of Kosin University Busan, 2016.
- [32] E. S. Kim, "Factors Associated with Health Problems of Married Immigrant Women - Focused on Acculturation Stress, Parenting Stress and Social Support",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2014.
- [33] B. Y. Kim, "Action Research for Parent Empowerment of Married Immigrant Women",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 22, no. 1, pp. 65-76, 2013.
DOI: <https://doi.org/10.12934/jkpmhn.2013.22.1.65>
- [34] E. J. Oh, "A Survey on the Development and Effect of a Postnatal Self-Care and Parenting Program for Mothers in Multicultural Families", Graduate School of Kosin University Busan, 2014.

배 지 현(Ji-hyun Bae)

[정회원]



- 2014년 2월 : 고신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7년 3월 ~ 현재 : 고신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박사과정

<관심분야>
모성간호학, 노인간호

박 정 숙(Jeong-Suk Park)

[정회원]



- 2005년 2월 : 고신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0년 2월 : 고신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관심분야>
모성간호학, 노인간호